

경제

주식 성수품값 줄줄이 뛴다

정육세트 7~20%·수산물 5% 인상

작황 호조 사과·배 등 과일값만 내려

추석(10월 3일)을 한 달여 앞두고 한우·굴비·조미료 등 단골 추석 선물 메뉴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산지가격 상승·어획량 감소 등이 원인이다.

그래도 사과·배 등 과일은 아직 태풍 피해를 보지 않아 풍작이 예상된다. 충분한 햇살로 당도까지 좋은데다가 겨울에 예상되는 많은 추석 선물로 인기도 끌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동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주요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준비하고 있는 추석 선물세트 중에서 정육세트는 지난 추석보다 7~20% 정도 오를 예정이다.

굴비 등 수산물 세트도 5% 정도 인상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선물로 인기가 높았던 식용유, 참치 캔 등 공산

품 선물세트 가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갈비 등 정육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내놓는다. 생산이력제 실시 등으로 한우 산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해파리 피해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수산물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특히 굴비의 경우 선물용 큰 조기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추석 선물세트 용은 작년 대비 5%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일 등 청과류의 경우 윤달이 께 추석이 지난해보다 3주가량 늦어진데다 과일 농사가 풍작을 이뤄 물량도 넉넉해 5~10% 가량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갈비 등 정육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보다

■ 올 추석 선물값 가격	
갈비 등 정육세트	7~20% ↑
굴비 등 수산물 세트	5%내외 ↑
사과·배 등 과일	5~10% ↓
커피류	5% ↑

(자료: 각업체)

2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또 굴비는 작년 대비 4%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외인도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한우는 7~10% 정도 값을 올린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조미김은 지난해보다 5~10% 가량 올랐고, 참치·햄 등 통조림류와 식용유·참기를 등 조미료 선물값도 10~15%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커피류 선물세트는 5% 가량 인상되고 샴푸와 비누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도 지난해보다 5~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기자 emlee@kwangju.co.kr

'바다 사막화' 막는 벤처기업

■ 메카해양연구소 이행우 대표

(주)메카해양연구소는 철강슬래그(제철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친환경적인 인공어초와 오션블록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뒤 1년도 못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가 하면 한국능률협회의 'ISO 9001' 인증을 비롯,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과 환경부의 '환경마트'를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력을 확보한 뒤 회사 설립에 나설 정도로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지금껏 투자한 연구개발비만 8억 원이 넘는다.

이같은 노력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친환경적 인공어초와 소파 블록을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특히 등록 건수도 18건에 달한다.

이 회사의 친환경적인 인공어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험어초로 선정돼 조달납품 방식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백화현상 또는 갯녹음)'이 심각한 여수시 삼산면 거문

도 지역에 40기가 설치됐다. 또 울산북방파제공사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공사에서도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기도 했다. 올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0배가 넘는 25억원으로 늘어 잡았고 종국 등으로 해외 진출 중이다.

이행우 대표이사는 "4대강 정비사업' 등 친환경적인 항만과 어항을 만드는데 필요한 특화 제품 및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디자인 창호 소비자 감성 충족

■ 호남창호 이영숙 대표

(주)호남창호는 건축자재 업계의 떠오르는 별이다.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중소기업끼리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건축자재 시장에서 고품질 창호 및 알루미늄 단열창 등으로 지난해 22억8천5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올해도 30억으로 목표를 늘려잡는 등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결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개발·판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성을 들인다.

전남대·호남대·서강정보대·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과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고객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힘쓰는 등 기업 내실화에 주력해 왔다. 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약을 맺는 한편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 차지단체와 함께 주택창문 개량화 사업을 추진, 복지시설 등에 자사 제품을 설치하는가 하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지원 시설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영숙 대표이사는 "남성 위주의 건설 시장에서 여성 기업인으로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현장을 뛰어온 경력이 시장의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유통에 부응하는 제품으로 승부를 겨루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유재철 광주일보 대표이사, 이영숙 (주)호남창호 대표이사, 이행우 (주)메카해양연구소 대표이사,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엑스포타운' 2천여가구 짓는다

주공 5천억 들여… 세계박람회 종사자 숙소 활용

'순천가곡 휴먼시아'

571가구 임대 신청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가곡동 '순천가곡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 571가구에 대한 임대 신청을 받는다.

임대 조건은 36㎡가 보증금 1천2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이며, 46㎡(보증금 1천900만원·월임대료 11만5천원), 51㎡(2천300만원·14만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99만3천원 이하 ▲토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2천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다. 문의 062-380-0400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치는 28일 기준 21일과 비교

"마트 주유소는 SSM과 다르다"

정부, 기름값 인하 노리고 오히려 권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감속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또 다른 불씨인 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된 마트 주유소는 과도한 진입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업조정 신청접수권과 대기업에의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축소 등의 권리,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시·도에 부여했다.

하지만, SSM과 달리, 주유소는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 주유소업계의 민원을 감안해 대형 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도시계획 등을 통해 막는 20여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지난 27일 소집해 규제의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슈퍼마켓의 반발에도 정부가 마트 주유소를 SSM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마트 주유소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물가급등에 대처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휘발유 등이 포함된 52개 생필품 물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으로 대형 마트 주유소 확산정책을 들고 나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는 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월 中企가동률 69%

지역 경기 6개월째 상승

광주·전남 중소기업 7월 평균 가동률이 소폭 상승,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1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7월 중 평균 가동률은 68.7%로 전달(67.7%)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가동률은 지난 3월 63.9%를 기록한 뒤 4월 64.8%→5월 67.6%→6월 67.7% 등 6개월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작년 동월(71.2%)보다는 2.5%포인트 하락한 것이어서 조업부진 상태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35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5 16 17 20 26 41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32,858,250	6
2 5개 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9,753,733	29
3 5개 숫자 일치	1,486,157	1,166
4 4개 숫자 일치	58,810	58,93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06,238

팝콘복권

(제175회)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	5억	581,062
2 1억	2조	70,147
3 1천만	1억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9,675
5 50만	각조	70,73
6 2천	각조	20
7 1천	각조	95
8 500	각조	9
9 100	각조	1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률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대표이사 010-7570-7525

공장·토지 대표이